

# 조선시대 자만시의 전개 양상과 계보적 특징\*

임준철(고려대)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계보적 특징 |
| 2. 자료 범위와 논의 기준 | 5. 맺는 말   |
| 3. 전개 양상        |           |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현전하는 자만시 전반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 시적 계보 내에서 그 특징을 究明한 것이다. 자만시는 시인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葬送하는 변격의 만시다. 필자는 학계 최초로 자만시에 주목하고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자만시의 시적 계보와 조선 전기의 양상, 자만시의 유형적 특성, 그리고 동아시아 자만시의 시원인 陶淵明의 『擬挽歌辭』의 한국적 수용과 변주 양상에 관한 글들을 발표하였다.<sup>1)</sup> 여기에선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지난 7년 간 수집해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A00345)

1) 줄고,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319~356면.

줄고, 『조선시대 自挽詩의 類型的 特性』, 『어문연구』 제14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6, 375~400면.

온 자만시 전반에 대한 총괄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자만시는 동아시아 자만시의 흐름 속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 특징도 동아시아 자만시의 시적 계보에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자만시에 대해선 지금까지 충분히 알려진 바가 없다. 중국이나 일본의 중국문학 연구자에 의해 陶淵明의 자만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sup>2)</sup> 필자 나름대로 중국의 자만시를 수집하고 일본의 자만적 작품을 부분적으로 참조한 바 있으나, 이것만을 가지고 동아시아 자만시의 시적 계보를 再構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선 부득이 동아시아 자만시의 시원을 기점으로 그것을 계승한 한국 자만시의 시적 계보 속에서 개별 자만시의 특징을 구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다만 한국 자만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중국 자만시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본래의 목적을 완수하고자 한다.

## 2. 자료 범위와 논의 기준

자만시는 自傳, 自祭文, 自撰墓誌銘, 自撰年譜, 自贊 등과 함께 동아시아의 자전적 글쓰기 양식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자만시는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죽은 자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장례의 정경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수성 또한 가지고 있다. 필자는 앞서 자만시의 자료 범위를 검토하면서 넓은 의미의 ‘자만적 작품’과 좁은 의미의 ‘자만시’로 나누어 본 바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이 글에서 다룰 자만시란 좁은 의미의 ‘자만시’에 해당하며, 대체로 ‘自挽’, ‘自輓’, ‘預挽’ 등의

줄고, 『한국 한시에서의 陶淵明 <擬挽歌辭>의 수용과 변주』, 『한국한시연구』 21, 한국한시학회, 2013.10, 291~332면.

2) 대표적인 성과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川合康三, 『中國の自傳文學』, 創文社, 1996.(이 책은 심경호에 의해 번역되어 『중국의 자전문학』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도 출판되었음); 一海知義, 『陶淵明—情寓虛構的詩人』, 岩波書店, 1997.; 王立, 『中國古代自挽自悼詩文及其審美價值』, 『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 2001年 第3期; 吳小如, 『說陶淵明 <挽歌詩> 三首』, 『古典詩詞札叢』, 天津古籍出版社, 2004.

제목은 단서로 삼아 접근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 ‘自悼’, ‘絶筆’, ‘遺詩’ 등 다른 제목을 단 작품도 있다. ‘자만’ 외의 제목을 가진 작품의 경우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만’으로서의 양식성이 변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sup>3)</sup>

한편 자만시는 臨終詩·絶命詩(辭) 등 유언적 성격의 한시(사)들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만시는 자신의 실제 죽음을 예비하는 유언적 성격의 작품들과 달리 반드시 실제 죽음과 관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죽은 나의 눈으로 삶을 돌이켜 보는 독특한 시적 발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유언적 작품들은 자만시와는 분명히 다른 作品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검토할 자만시는 이렇게 ‘자만’으로서의 양식성을 분명히 갖춘 작품만으로 국한하기로 한다.

기준에 따라 필자가 지난 7년간 검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350권과 『한국문집총간 속집』 150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영남사립문집, 경상대학교 문천각에 소장된 경상우도문집 및 각급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집, 그리고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한국역대문집총서』가 그것이다.<sup>4)</sup> 조사 결과 지금까지 총 82명의 작가가 남긴 90題 165首의 자만시를 찾을 수 있었다.<sup>5)</sup>

현전 자료만으로 볼 때 한국 자만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다. 김시습의 『我生』이 자만적 작품의 효시격이라면, 남효온의 『自挽四章, 上佔畢齋先生』은 본격적 자만시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만시와 일정하게 성격을 공유하는 자찬묘지명이 고려시대부터 발견되는 것을 보면<sup>6)</sup> 실제 자만시의 시작이 조선시대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선 현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3) 줄고, 『조선시대 自挽詩의 類型的 特性』, 『어문연구』 제14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6. 377~380면.

4) 이중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한국역대문집총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현재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 후후 기타 개인소장 문집과 함께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5) 자만시 작가와 작품 목록은 원고 분량 문제로 이 글엔 신지 못했다. 근간 예정인 역주서에 부록으로 실을 예정이다.

6) 金暉(1234~1305)의 『金暉자찬묘지명』[1305(충렬왕31)년 창작],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누리미디어. <http://k5000.nurimedia.co.kr>

전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조선시대로 시간범위를 한정하였다.

### 3. 전개 양상

현전 자만시는 창작배경과 주제,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란 측면에서 크게 조선 전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sup>

먼저 창작배경과 주제는 측면에서 조선시대 자만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전기 자만시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현실에서 유리되거나 축출된 인물들에 의해 창작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내 죽은 뒤 무덤에 표시할 적에,  
 ‘꿈을 꾸다 죽어 간 늙은이’라 써주시오.<sup>8)</sup>  
 그렇다면 내 마음을 거의 이해하고,  
 천년 뒤에 이내 회포 알아주는 이 있으리라.  
 百歲標余墳，當書夢死老。  
 庶幾得我心，千載知懷抱。  
 김시습, 『我生』<sup>9)</sup>

다만 한스럽기는 사람이었을 때에,<sup>10)</sup>  
 참혹하게 여섯 가지 액이 있었다네.  
 얼굴이 못생겨 여색이 다가오지 않고,

7) 자만시를 세 시기로 분류한 것은 한시사의 보편적 전개양상을 염두에 둔 결과다. 시대별로 죽음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자만시의 표현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주목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만시 표현양상의 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8) ‘夢死老’는 『近思錄』 『觀聖賢』편의 ‘醉生夢死’란 말에서 온 표현이다.

9) 金時習, 『梅月堂集』 詩集 卷十四, 한국문집총간 13, 민족문화추진회, 1990, 318면.

10) “但恨爲人時” 이하는 도연명 『擬挽歌辭』 三首 중 其一 “다만 한스럽기는 세상에 있을 때, 만족스럽게 술 마시지 못한 일이라네.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를 남효온 자신의 입장에서 부연한 내용이다.

집이 가난하여 술이 넉넉지 못했네.  
 행실이 더러워서 미치광이로 불렸고,  
 허리가 곧아 높은 사람 노엽게 했지.  
 신발이 뚫어져 발꿈치가 돌에 채이고,  
 집이 낮아 서까래가 이마 때렸다네.

但恨爲人時, 慘慘有六厄. 貌醜色不近, 家貧酒不足. 行穢招狂號, 腰直怒尊客. 履穿踵觸石, 屋矮椽打額.

— 남효온, 『自挽四章, 上佔畢齋先生』 제1장<sup>11)</sup>

金時習(1435~1493)과 南孝溫(1454~1492)의 예에서 보듯 초기 자만시 작가들은 이른바 방외인으로서 체제 밖의 지식인들이었다.<sup>12)</sup> 이들은 스스로 정치현실에서 격리된 것이지만 인용시들은 그 동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세상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일정 정도 연관되면서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 연산군·중종대 훈구파로부터 음해를 당한 사림 지식인들에 의해 지어진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洪彥忠(1473~1508), 奇遵(1492~1521), 그리고 盧守愼(1515~1590)의 자만시가 그런 경우다.

[1] 大明 천하, 해가 먼저 비치는 나라.  
 남자의 성은 홍이요, 이름은彦忠 자는 直卿이라.  
 반평생이 오활하고 졸해서, 문자만을 배웠도다.  
 세상에서 32년을 살고 끝마치노라.  
 명은 어찌 이다지도 짧은데, 뜻은 어찌 이다지도 길단 말인가.  
 옛 무림현 고을에 묻는다.  
 운산은 위에 있고, 강물은 아래 있다.  
 천추만세에, 누가 이 들판을 지나가려나.  
 손가락질하고 서성대며, 반드시 서글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大明天下, 日先照國. 男子姓洪, 名忠字直. 半生迂拙, 文字之攻. 在世卅有二年而終. 命何云短, 意何其長. 卜于古縣茂林之鄉. 雲山在上, 灣碕在下. 千秋萬歲, 誰過斯野. 指點徘徊, 其必有悵然者矣.

— 홍언충, 『自挽』<sup>13)</sup>

11) 南孝溫, 『秋江集』 卷一, 한국문집총간 16, 민족문화추진회, 1990, 30면.

12)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 문학』, 집문당, 1999, 232~255면.

[2] 해는 저서 하늘은 먹물을 뿌린 듯하고,  
 산은 깊어 골짜기는 구름이 깔린 것 같구나.  
 임금과 신하 천년의 뜻이,  
 서글피라 외로운 무덤으로 남았네.  
 日落天如墨, 山深谷似雲.  
 君臣千載意, 惆悵一孤墳.

- 기준, 『自挽』<sup>14)</sup>

[3] 어지러운 티끌세상 이미 지난 세월 되었고,  
 李膺·杜密과 이름 나란히 하니 또한 기남아일세.<sup>15)</sup>  
 관 빼돌어지면 날 모욕한 듯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고,<sup>16)</sup>  
 섬기는 바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진하게 이야기 하네.  
 한 번 바다 속에 누워 정신 스스로 지키고,  
 홀로 하늘 밖 감에 그림자에게 부끄러울 것 없네.  
 賈誼 울 수 있고 난 웃을 수 있으니,  
 함께 서른 세 해 세상을 살고 갔다네.  
 塵世紛紛成古今, 齊名李杜亦奇男.  
 其冠澆我望望去, 所事逢人歷歷談.  
 一臥海中神自守, 獨行天外影無慙.  
 賈生能哭吾能笑, 俱享年三十三.

- 노수신, 『自挽』<sup>17)</sup>

홍언충이 [1]의 시를 쓴 甲子年(1504년)은 연산군의 학정이 극해 달했던 때이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가 내쫓겨 죽은 것을 한스럽게 여겨 성종조의 신료들을

13) 洪彦忠, 『寓庵稿』 卷二, 한국문집총간 18, 민족문화추진회, 1990, 323면.

14) 許筠, 『國朝詩刪』 卷一, 아세아문화사, 1980, 245면.

15) 여기에서 李·杜는 後漢 광무제의 八駿으로 꼽혔던 李膺과 杜密을 가리킨다. 이들은 黨錮의 獄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16) 『맹자』 『公孫丑 上』에 “(백이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생각하기를 鄉人과 더불어 서있을 때에 그 冠이 바르지 못하면 망망연히 떠나가 마치 장차 자신을 더럽힐 듯이 여겼다.推惡惡之心, 思與鄉人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若將澆焉.”에서 온 표현이다. 朱熹의 集注에선 “망망은 떠나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모양이다.望望, 去而不顧之貌.”라고 풀이하였다.

17) 盧守愼, 『鯀齋集』 卷二, 한국문집총간 35, 민족문화추진회, 1989, 93면.

거의 다 죽었는데, 갑자사화가 있던 해 5월 홍언충은 궁중의 일을 함부로 짐작하여 간했다는 죄목으로 곤장 백대를 맞고 멀리 진안까지 유배된다.<sup>18)</sup> 같은 해 6월 부친 홍귀달은 손녀딸을 궁중에 들이라는 왕명을 거역한 죄로 교살되는데, 그 여파로 나머지 형제들마저 모두 유배된다. 또 절친한 벗인 박은이 참수되었으며, 이행은 곤장을 맞은 뒤 귀양 갔다. 시의 병서에서 홍언충은 “갑자년에 내가 진안현으로 귀양을 갔는데,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 반드시 죽겠다 여겨 옛사람들이 자만한 것을 모의하여 명을 짓고, 또 자식들에게 경계로 삼도록 했다. 甲子歲，予謫眞安縣，事將有不測者。自分必死，擬古人自挽而銘之，且戒子云。”라고 쓰고 있다.

기준은 趙光祖의 문인으로 [2]의 시는 기묘사화로 함경도 穩城에 유배갔을 때 지은 것이라 한다.<sup>19)</sup> 이 시를 지은 뒤 기준은 辛巳誣獄 때 유배지에서 교살되었다. 다른 인물이 작가라는 설이 있기도 하지만 “해는 저서 하늘은 먹물을 뿌린 듯하고, 산은 깊어 골짜기는 구름이 깔린 것 같구나. 日落天如墨，山深谷似雲.”라는 구절은 士禍가 잇따르던 시기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임은 분명하다.

노수신의 시[2]는 良才驛 壁書 사건에 연루되어 순천에서 진도로 移配되었을 즈음에 지어진 것이다. 시인은 乙巳士禍로 인해 장장 19년에 걸쳐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그가 세 차례에 걸쳐 쓴 자만시들은 모두 이 기간 동안 지어졌다. 자신의 결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결연한 자세가 두드러진다. 시인은 시의 말미에서 가의와 자신을 병렬시켜 자신의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의는 漢 文帝 때의 인물로 문제로 이름나 약관의 나이에 博士가 되고 대부의 지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하지만, 周勃·灌嬰 같은 대신들의 시기로 長沙王의 太傅로 좌천되었고, 끝내 자신의 뜻을 펴보지 못한 채 33세의 나이로 죽고 만다. 이 해 노수신 역시 서른 세 살이었는데, 가의의 울음과 자신의 웃음을 대비시킴

18) 『燕山君日記』, 53卷 10年 5月 30日 己未條.

19) 현재 전하는 기준의 문집 『德陽遺稿』와 『服齋集』에는 이 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국조시산』에는 허균의 형 許筠이 운성에서 얻어온 것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己卯錄』과 『大東詩選』에서는 金湜(1482~1520)이 기묘사화 때 善山에 유배되었다가 신사무옥에 연좌되어 다시 절도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창에 숨었다가 자결하기 전에 지은 절명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석중·강혜선·안대회·이종묵 옮김,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대의 한시(國朝詩刪)』 1, 문헌과해석사, 1999, 71~72면.

으로써 자신 운명의 비극성과 함께 죽음에 대한 결연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시인은 모두 억울한 누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만시를 창작했다. 그들에게 닥친 정치적 시련이 자만시 창작에 중요한 함수가 된 것이다.

중기에 이르면 작가가 처한 현실 문제가 좀 더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된 예가 발견된다. 중인(여향)문학 초창기 ‘六家’ 중의 한 사람인 崔奇男(1586~?)의 『和陶靖節輓詩三章』이 그것이다.<sup>20)</sup>

몸 떠난 넋 흩어져 어디로 갔는가?  
바람만이 무덤 앞 나무에서 울부짖겠지.  
살아 있을 때 나 알아주는 이 없었나니,  
날 애달파하며 곡해줄 사람 누가 있으랴.  
游魂散何之, 風號墓前木.  
在世無賞音, 吊我有誰哭.

— 제1장 중간 부분

살아선 콩과 물도 배불리 먹지 못했건만,<sup>21)</sup>  
죽은 뒤 어찌 술과 음식 차려주길 바라랴.  
한잔 술도 다시 마시지 못하리니,  
한 점의 고깃들 어찌 맛볼 수 있으리오.<sup>22)</sup>  
生不飽菽水, 死何羅豆羹.  
一勺不復飲, 一臠那得嘗.

— 제2장 전반부

- 20) 崔奇男, 『龜谷詩稿』 卷一上, 한국문집총간 속집 22, 민족문화추진회, 2006, 315면.  
21) 菽水는 콩과 물로 변변하지 못한 음식을 가리킨다. 『禮記』 『檀弓 下』 편에서 자로가 집이 빈한해서 아버이에 대한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탄하자, 공자가 “콩과 물을 마시더라도 아버이를 기쁘게 해드린다면 효라고 할 수 있다.啜菽飲水盡其歡, 斯之謂孝.”라고 했다.  
22) 一臠은 『장자』 외편 『至樂』 편의 고사에서 온 표현이다. 魯나라 때 海鳥가 노나라 郊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그 새를 모셔다가 종묘에서 잔치를 베풀고 舜 임금의 음악인 九韶를 연주하고 소·양·돼지의 고기로 대접하니, 그 새는 어리둥절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3일 만에 죽었다.

누가 귀곡노인의 무덤인 줄 알리오,  
 나무꾼 목동이나 와서 슬피 노래하리.  
 먼 훗날 천 년 만 년 뒤에도,  
 적막하게 산모퉁이에 놓여 있겠지.  
 誰知龜老藏, 樵牧來悲歌.  
 千秋萬歲後, 寂寞依山阿.

- 제3장 마지막 부분

이 시는 최기남이 도연명의 自挽詩에 和韻한 작품이다. 도연명의 시가 入棺-葬送-埋葬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과 달리 최기남의 시는 매 장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悔恨과 喪葬禮의 장면이 겹쳐지면서 저승이 자신이 진정 안주할 수 있는 곳임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최기남은 본래 東陽尉 申翊聖의 宮奴였던 인물이다. 타고난 재주로 신흙·신익성 부자에게 인정을 받아 사대부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sup>23)</sup> 하지만 신분의 한계로 인해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 죽을 때 관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였다.<sup>24)</sup> 이 시는 신분적 한계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볼 수 없었던 시인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창작동인이 된 셈이다. 다만, 전기의 시인들과 달리 이 시기 혹은 이후 중인(여향) 문인들이 동일한 배경 하에 집단적으로 자만시를 창작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자만시는 매우 특수한 자아표현 방식이지만 시대성 또한 반영되어 있다. 이런 시대적 특수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 작품으로 李言直(1631~1698)의 『自挽六首』(戊寅十月五日臨化時)를 들 수 있다.<sup>25)</sup>

살아서는 조선의 선비가 되고,  
 죽어서는 명나라의 신하가 되리.  
 아! 나의 끝없는 한이,

23) 최기남은 1643년의 일본 통신사행에 포의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문명을 떨치기도 하였고, 李景奭·趙綱 등에게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4) 張志淵, 『逸士遺事』 권3, 최기남조, 임형택 편, 『이조후기여향문학총서』(여강출판사, 1986.) 수록본 참조.

25) 李言直, 『明湖集』, 卷上, 木版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압록강 나루터 씻고 지나가네.<sup>26)</sup>  
 生爲東國土, 死作皇明臣.  
 嗟吾無窮恨, 洗流鴨水津.

— 첫 번째 수

내 죽음에 스스로 만사를 쓰니,  
 홀로 방황할 사람 없어라.  
 장차 어디로 떠나가는가?  
 내일 명 황제께 조회하려네.  
 自謀向薨里, 無人獨彷徨.  
 且將何處去, 翌日朝明皇.

— 마지막 수

이언직의 본관은 永川, 자는 子愼, 호는 明湖散人·石后이며 龔巖 李賢輔의 후손이다. 그가 살았던 17세기는 명에서 청으로, 한족에서 만주족으로 동아시아의 권력체제가 이동하던 시기였다. 家狀에 따르면, 14세 때 毅宗皇帝 죽음 소식을 듣고 북향 통곡하면서 만사를 지었다고 한다. 또 『丙子日記』를 읽을 때 최명길이 후금과의 화친을 주장한 부분에 이르러선 책을 덮고 크게 탄식했으며, 송대의 애국시인 陸游의 “(群陰伏, 太陽升.) 胡無人, 宋中興”(『戰城南』 중 「胡無人」)이란 구절을 외울 때면 울울하고 비분의 심회를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의식 하에 직접 『尊周史』를 편찬기도 했다. 자신의 죽음을 葬送하는 자만시에도 이런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이언직의 崇明排清 의식이 얼마나 철저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시대상의 반영은 조선왕조가 종말을 맞이할 무렵에도 발견된다. 李建昌·黃玟과 함께 구한말 삼대 문인으로 꼽히는 金澤榮(1850~1927)은 세 차례에 걸쳐 자만시를 쓴 바 있다. 그는 을사늑약 뒤 시국을 개탄하다가 1908년 결국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망명지에서 다음과 같은 자만시를 남겼다.

26) 이언직 자신의 꿈 내용과 관련된 표현이다. 甲戌년에 明齋軒에서 명호에 뗏목을 띄워 가다 연경의 무사를 만나 압록강을 건너고 백제성에 올라 천하의 장관을 다 본 뒤에 大明輿地圖를 뒤적이며 美人之詩를 노래하고 下女의 술을 사는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니 衙吏들이 문을 두드리며 돈을 재촉하였다고 한다.

공에서 태어나 다시 공으로 돌아가니,  
 잠시 천지의 조화 속에서 노닌 것이라네.  
 유독 혜강처럼 부질없는 한 남아 있으니,  
 廣陵散 곡조가 모진 바람에 떨어지는구나.  
 生於空裏復歸空, 且可徜徉大化中.  
 獨有嵇家閒恨在, 廣陵琴調落飄風.

— 김택영, 『自挽』<sup>27)</sup>

이 시가 수록된 甲子詩錄은 1924년 김택영의 나이 75세 때 지은 시들을 묶은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시인이 세상을 뜨기 3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 외에도 김택영은 자만시를 두 수 더 남기고 있다. 위 시 뒤에 지어진 『後自挽』이란 시에서 김택영은 자신의 망명생활을 이렇게 읊고 있다. “나는 불교의 偈頌을 말하길 좋아하지 않지만, 오직 불교의 인연 말하길 좋아하지. 삼한의 땅에서 태어나 중국 땅에서 늙어가니, 인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색옹이 나에게 청정한 곳에 목게 해주었으니, 물의 남쪽 꽃의 북쪽에 서너 칸짜리 집이라네. 我不喜說天竺偈, 所喜說者惟桑緣. 以韓之產老中土, 非緣何以能致然. 齋翁館我清淨地, 水南花北三四椽.”<sup>28)</sup> 여기서 齋翁은 張騫의 호이다. 장건은 김택영의 중국 망명을 도와준 중국의 지식인이다. 자신의 근거지인 南通에 김택영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형 張翥이 맡고 있던 翰墨林印書局에서 근무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택영은 자만시를 통해 자신의 망명과정을 드러냄으로써 국권침탈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복잡한 사정이 있다.

시인은 起句와 承句에서 삶이란 공으로부터 와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삶이란 잠시 세상에 노니는 일일 뿐이라고 담담히 쓰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죽음에 대해 어떤 여한도 남을 일 없건만 轉句에선 시상이 전환되어 뜻밖에도 유독 혜강과 같은 한이 남는다고 하였다. 혜강의 한이란 혜강이 억울한 죽음을 맞으며 자신만이

27) 金澤榮, 『韶濩堂集』 借樹亭雜收 卷一 甲子詩錄, 한국문집총간 347, 민족문화추진회, 2005, 477면.

28) 金澤榮, 『韶濩堂集』 借樹亭雜收 卷一 甲子詩錄, 한국문집총간 347, 민족문화추진회, 2005, 477면.

연주할 수 있던 광릉산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함을 탄식한 데서 온 표현이다.<sup>29)</sup> 타인을 애도하는 만사에서 고인의 죽음을 광릉산이 이제 없어진다고 표현한 예들이 있지만,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지간한 자부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표현이다.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김택영은 고려의 구도인 개성 출신으로 조선사회에서 소외당한 개성출신 인물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또 『韓史繫』을 저술하여 조선왕조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해 유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김택영은 자신이 죽으면 고려유민으로서의 정신이, 또는 자신만의 문학과 학문세계가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할 것을 걱정했던 듯하다.

다음으로 형식과 내용이란 측면에서 조선시대 자만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만시는 절구·율시로 쓸 때와 고시·배율로 쓸 때 작법이 달라진다고 한다.<sup>30)</sup> 자만시도 마찬가지로 시형식에 따라 내용에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고시 형식으로 쓴 자만시가 내 죽음의 정경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절구 형식의 자만시는 자신 삶에 대한 회한과 죽음의 슬픔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시 형식은 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것인 만큼 형식상의 차이를 가지고 내용의 차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자만시의 濫觴이라 할 도연명의 『擬挽歌辭』가 고시 형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전 자만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시습의 『我生』, 남효온의 『自挽四章, 上估畢齋先生』 등 초기 작품들이 고시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기 이후에도 최기남의 『和陶靖節輓詩三章』, 권慤(1604~1672)의 『次陶挽歌韻』 三首 등이, 후기에도 田愚(1841~1922)의 『和陶集擬自挽歌辭 三首』, 김택영의 『張峰石以自挽詩屬和者數年, 今始有應』, 『後自挽』 등이 모두 고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 중 김시습과 김택영의 자만시를

29) 廣陵散은 琴曲 이름이다. 광릉산은 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嵇康이 즐겨 연주하던 곡조라고 한다. 鍾會의 참소로 인해 죽을 때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곡을 연주하면서 “광릉산 곡조가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廣陵散 於今絕矣.”라고 탄식한 바 있다.

30) 이 점에 대해선 19세기 洪吉周가 명쾌하게 논한 바가 있다. 홍길주는 『수여난필』에서 만시를 율시와 절구 형식으로 쓸 때와 고시나 배율로 지을 때 달라지는 내용 구성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박무영·이현우 외 역, 『沈瀛丙函』(하), 태학사, 2006, 295~297면.

제외하면 모두 도연명의 자만시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작인 남효온의 작품에서 이미 도연명의 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주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도연명의 『擬挽歌辭』 3수가 차례대로 죽음부터 入棺(첫 번째 수), 장례의식과 운구(두 번째 수), 매장과 이후의 정경(마지막 수)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효온의 시는 죽음과 장례(제1장)-장례와 매장(제2장)-사후세계(제3장)-매장 이후의 정경(제4장)으로 이어진다. 상장례의 과정이 그저 線條的으로 전개되는 도연명의 자만시와 달리 남효온의 경우는 상장례의 과정이 어느 정도 반복되면서 사후세계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 남효온의 시는 현실세계 속 자신의 불우를 직설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도리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自贊的’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이는 이 시의 창작경로와 수용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시제를 『自挽四章, 上估畢齋先生』이라고 했듯이, 이 작품은 자신의 스승 김종직에게 보낸 편지에 別章 형식으로 덧붙인 것이다. 스승에게 자만시를 써보낸 일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일이지만, 김종직의 반응 역시 독특하다.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제자의 치기를 나무라기는커녕 작품의 창작경로와 그 의미를 해설하고 있기까지 하다.<sup>31)</sup>

하지만, 남효온 이후에는 정작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전 작품들 중 대다수는 절구나 율시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임종시나 절명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보인다. 엄밀히 말해 임종시와 자만시는 다른 것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겹쳐지기도 한다. 趙榮順(1725~1775)의 세 수로 이루어진 연작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 작품은 『絶筆』이란 제목으로 임종 무렵 세 차례에 걸쳐 지어진 것이다.<sup>32)</sup> 이 시는 임종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죽음과 매장에 관련된 상상력을

31) 김종직에 따르면 남효온은 도연명 외에도 송대 秦觀의 『自作挽詞』를 참조하여 자만시를 창작했다. 남효온의 자만시와 그에 대한 김종직의 평가에 관해서는 앞서 발표한 글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줄고,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332~339면; 『한국 한시에서의 陶淵明 <擬挽歌辭>의 수용과 변주』, 『한국한시연구』 21, 한국한시학회, 2013.10. 322~325면.

32) 趙榮順, 『退軒集』卷三, 한국문집총간 속집 89, 한국고전번역원, 2009, 303면.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자만시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매수 마다 각기 “10월 13일 유시(오후5시~7시)에 공주의 객사에서 임종 무렵 친히 쓰다.十月十三日酉時, 在公州客館, 臨終親書.”(『絕筆』其一), “10월 13일 밤에 종자 우철을 시켜 쓰게 하다.十月十三日夜, 命從子宇喆書.”(『絕筆』其二), “10월 14일 자시(밤 11시~1시 사이)에 정철을 시켜 쓰게 하다.十月十四日子時, 命貞喆書.”(『絕筆』其三)<sup>33)</sup>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절필」 등의 제목이 붙은 자만시도 후기에 들어 점증된 것으로 보인다. 중기 한문 사대가 중의 한 사람인 李植(1584~1647)은 「五月十九日, 口占代筆 丁亥」<sup>34)</sup>이란 제목의 시를 남겼는데, 이 시 역시 자만시로 인식되었다. 일반적인 절필·임종시와 달리 자신 사후의 정경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식의 작품은 후일 李敏輔에게 계승되어, 도연명 「의만가사」의 의미를 담은 자만시로 탈바꿈되기도 했다.<sup>35)</sup> 이런 예로 또 梁慶遇, 李守淵 등의 시가 더 있다.<sup>36)</sup> 중·후기에 들어 자만시와 임종시가 분명히 구별되지 않고 창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만시가 이런 것은 아니다. 도리어 절구라는 매우 짧은 시형식에도 불구하고 자만시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林梯(1549~1587), 趙任道(1585~1664), 李亮淵(1771~1853) 등의 작품이 그 대표적 인 예다.

[1] 강한 풍류 40년 세월 동안,<sup>37)</sup>

33) 같은 일시에 함께 「自誌銘」도 남겼다고 한다. 『退軒集』 卷七에 「自誌銘」이 실려 있는데, “乙未十月十四日子時, 臨屬纊, 命子元喆受書”라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生於太平, 死於太平. 夫誰之憾, 是謂順寧. 惟忠之深, 惟志之長. 噫千百世, 知者其蒼.”

34) 丁亥는 李植이 세상을 뜬 1647년(인조 25)을 말한다. 이해 6월 11일 이식은 澤風堂에서 세상을 떴다. 李植, 『澤堂集』 續集 卷六,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274면.

35) 4. 계보적 특징에 인용된 이민보의 시를 참고하십시오.

36) 梁慶遇(1568~1638), 「臨終自挽(易簣時奮筆自題)」, 『霽湖集』 卷八, 筆寫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李守淵(1693~1748), 「臨絕詩」(戊辰正月十五日), 『靑壁集』 卷一, 한국문집총간 속집 72, 한국고전번역원, 2009, 361면.

37) 江漢風流는 임제가 자신의 풍류를 東晉의 名臣인 庾亮의 풍류에 빗댄 표현이다. 江漢을 한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임제의 宦歷이나 그의 성장지를 감안할 때 이 구절에선

맑고 아름다운 명성 당시 사람들 놀라게 하고도 남으리.  
 이제야 학 타고 세간 굴레 벗어나니,  
 바닷가의 반도는 열매 새로 익겠구나.<sup>38)</sup>  
 江漢風流四十春, 淸名贏得動時人.  
 如今鶴駕超塵網,<sup>39)</sup> 海上蟠桃子又新.

— 임제, 『自挽』<sup>40)</sup>

[2] 상봉정으로 봉황 돌아오지 않으니,<sup>41)</sup>  
 표현히 곧장 흰 구름 사이로 올라갔네.  
 이로부터 호수와 산에 일정한 주인이 없으니,<sup>42)</sup>  
 맑은 달과 맑은 바람에 만세토록 한가롭겠네.  
 翔鳳亭中鳳不還, 飄然直上白雲間.  
 湖山自此無常主, 明月淸風萬古閒.

— 조임도, 『自輓』<sup>43)</sup>

한강을 의미하는 말로 보기 어렵다.

- 38) 신화 중에 나오는 蟠桃은 西王母가 심은 복숭아로, 3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으며 이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고 한다.
- 39) 高敬命이 임제의 죽음을 애도한 輓詩에 『自挽』 시의 기·전·결구가 用事되어 있는데, “如今鶴駕超塵網”이 “超然鶴駕蟠塵網”(『霽峯集』卷五「哀林子順」)이라고 되어 있다.
- 40) 林梯, 『林白湖集』卷三, 한국문집총간 58, 민족문화추진회, 1990, 288면.
- 41) 조임도는 광해군 10년(1618) 가을 그의 나이 34세 때 咸安에서 漆原의 恸內로 移住하였는데, 그곳에 小亭을 짓고 翔鳳이라 편액하였다. 이때 그는 인목대비 폐비에 반대하였는데, 대북세력을 피하기 위해 이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2) 無常主: 蘇軾의 글에 “임고정 아래로 십여 보도 되지 않는 거리에 큰 강물이 흐른다. 그 강물의 반질 정도는 아미산에서 눈이 녹은 물인데, 내가 마시고 먹고 목욕하는 것을 모두 이 물에서 취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꼭 고향에 돌아가야만 하겠는가. 강산과 풍월은 본래 일정한 주인이 없나니, 한가로이 즐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 할 것이다. 臨臯亭下不十數步, 便是大江. 其半是峨嵋雪水, 吾飲食沐浴皆取焉. 何必歸鄉哉. 江山風月本無常主, 閑者便是主人.”(『東坡志林』卷十)라는 말이 나온다.
- 43) 趙任道, 『澗松集』卷二, 한국문집총간 89, 민족문화추진회, 1992, 45면.  
 조임도 자만시의 표현들은 다음 시구들을 용사한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봉황이란 李白이 “대붕은 날아올라 팔방에 떨치다가, 하늘에서 날개 꺾여 힘을 쓰지 못했네 大鵬飛兮振八裔, 中天摧兮力不濟.”(『臨路歌』)라고 자신의 一生을 決算한 것을 聯想시킨다. 起句와 承句는 崔顥『黃鶴樓』시의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

[3] 시름으로 보낸 일생,  
달은 암만 봐도 모자라더라,<sup>44)</sup>  
그곳에선 영원히 서로 대할 수 있을 터이니,  
묘지로 가는 이 길도 나쁘지만은 앓구려.  
一生愁中過, 明月看不足.  
萬年長相對, 此行未爲惡.

— 이양연, 「자만自輓」<sup>45)</sup>

이들의 작품은 편폭의 제한으로 고시형식에 담긴 자만시처럼 상상계의 정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하지만, 함축적 표현을 통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當代에 문학 외에는 평가할 것이 없는 인물이란 평을 들었던 기인 임제나, 광해조에 폐모론을 반대하다 대북세력의 보복을 피해 은거했던 강직한 조임도, 그리고 낙척한 종실의 후손으로 평생 방외인을 자처했던 이양연은 모두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았던 작가들이다. 이들의 자만시는 모두 예외 없이 시형식의 제약을 전·결구의 반어적 표현으로 극복하고 있다. 임제가 이를 통해 부정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현실의 왜소함을 부각시켰다면, 조임도는 蘇軾의 시 「寄劉孝叔」에 나오는 ‘湖山の 주인’이란 표현을 빌려 불의한 권력을 피해 숨어사는 자신의 고결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양연은 ‘明月’이란 개인적 상징물을 활용하여 삶의 비극성을 뒤집어 표현하고 있다.<sup>46)</sup>

한편, 형식상의 문제 못지않게 자만시의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연작시 여부이다. 만시의 경우 절구·율시 등 단형의 형식을 선택할 때 연작시 형식으로 쓰는 경향이

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와 이백 「登金陵鳳凰臺」 시의 “鳳凰臺上鳳凰游, 鳳去臺空江自流.”를 교묘하게 交織하고 있다.

44) 이 두 구절은 “일생 근심으로 인해, 밝은 달 제대로 못 보았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45) 이 작품은 이양연의 원 문집에는 들어 있지 않고 규장각 소장 『韓客巾衍集』 뒤에 함철되어 있는 『臨淵堂別集』에 「病革」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하지만, 후대엔 이양연의 자만시로 알려진 바 있다. 李家源, 『玉溜山莊詩話』, 『이가원전집』 5, 정음사, 73면.

46) 이양연의 시에서 ‘明月’은 ‘白雲’과 함께 핵심적인 이미지의 하나라고 한다. 박동욱, 「산은 이양연의 시세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1~32면.

있는 반면, 자만시의 경우는 단형의 시형식에도 한 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죽음’이란 금기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일반 만시와 달리 시인으로 하여금 연작시 창작을 꺼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자만시 점증에 따라 연작시 형태로 쓴 작품들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작품 편수는 최소 2수에서 최대 13수에 이른다. 柳仁培(10수), 李言直(6수), 李明五(12수), 李是遠(13수), 安孝濟(6수) 등이 4수 이상의 연작 자만시를 남기고 있다. 자만작 작품으로는 이시원의 13수가, 자만시로서는 이명오의 12수가 최다 연작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盧守愼(3차례), 李元翼(2차례 4수), 玄德升(2차례), 李重明(2차례), 김택영(3차례) 등과 같이 연작시는 아니지만 두 차례 이상 자만시를 창작한 사례도 발견된다. ‘자신의 죽음’이 가진 금기성을 감안한다면 자만시를 두 차례 이상 짓는 일 역시 이례적이다. 이렇게 두 차례 이상의 창작이나 여러 수의 연작시를 남긴 작가 중 노수신·이원익·이정암을 빼면 모두 조선 후기 시인들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중 최다 연작시를 남긴 이명오와 이시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어느 때에나 다시 나를 만날까하고,  
 식구들 함께 슬퍼하는구나.  
 남은 자취 꽃 아래서 찾고,  
 여윈 얼굴 술 마시며 떠올리겠지.  
 무덤엔 한 서린 풀 우거지고,  
 곳은비에 선명한 무지개 뜨는구나.  
 경인년 아픔은 만겁이었으니,  
 일체의 곤궁 따위 어찌 근심하랴?  
 何時復見我, 眷屬悵然同。  
 遺躅尋花下, 凋顏想酒中。  
 蓬科結恨草, 陰雨發雄虹。  
 萬劫庚寅痛, 寧愁一切窮。

- 이명오, 『自挽』 十二首 중 네 번째 수(47)

李明五(1750~1836)는 穆陵盛世的 걸출한 시인 중의 한 사람인 李春英의 서자

47) 李明五, 『泊翁詩鈔』 卷六, 한국문집총간 속집 102, 한국고전번역원, 2010, 112면.

壽長의 후손이며 또 椒林體로 일컬어진 걸출한 시인 李鳳煥의 만아들이기도 했다. 아버지 이봉환이 崔益南의 사도세자 관련 상소에 연루되어 영조의 노여움을 사 庚寅年(1770)에 獄死한 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거의 평생에 걸쳐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 노력은 아들인 李晩用 대에 이르러 완전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명오의 자만시 전반에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다. 그가 12수나 되는 연작 자만시를 작성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 회한이 많이 남았기 때문일 것이다.

李是遠(1790~1866)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자 아우 李止遠과 함께 遺疏를 남기고 음독 자결한 인물이다. 李建昌의 조부로 이때 그의 나이는 78세였다. 이시원의 자만시는 병인양요가 있기 17년 전인 己酉年에 지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긴 시제를 가지고 있다.

『회갑이 되는 날, 넷째 중형 연옹이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부쳐 왔다. “소년이 어찌 노인의 마음 알리오, 회갑이 되어 술 마련하니 응당 기쁘구나. 군자는 종신토록 모두 이 날이거니, 처연한 눈물 든 잔에 떨구지는 말게나.” 그 날 심회가 좋지 못하여 가까운 친지들이 내게 권하는 잔을 다 받아 마셔서 드디어 밤새 크게 취하였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 그 운자를 써서 입으로 불러 감회를 드러내니, 때는 임금의 장례가 막 지나 글 쓰는 일을 자제해야 하지만 심정이 매우 슬프고 괴로우며 말은 통곡하는 것 같으니 옛사람이 스스로 애도했던 뜻을 취한 것이다. 忠恕하는 군자라면 혹 보고 슬퍼하지 않을까. 중형 휘원씨는 然翁이라 자호하였는데 호서지방에 숨어사는 군자다. 回甲日, 然翁四從兄, 寄一絕曰, 少年豈識老年懷, 辦酒應權醉甲回. 君子終身皆此日, 莫將悽淚落稱盃. 其日心懷不佳, 骨肉切己之觴, 皆受飲之, 遂沈醉竟夕. 夜枕, 用其韻, 口占抒感, 時因山纒過, 方戒筆硯, 而情甚悲苦, 語類痛哭, 盖取古人自挽之意. 忠恕之君子, 儻或覽而悲之, 族兄輝遠氏, 自號然翁, 湖西隱君子也.』<sup>48)</sup>

긴 시제에 드러나 있듯이 이시원의 자만시는 회갑 날 시인이 느낀 서글픔을 담고 있다. 한 해 전 부인 靑松 沈氏가 세상을 떠나서였을까? 이시원이 회갑 날 지은 자만적 시엔 지난 삶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하다.

후기에 들어 연작 자만시가 점점했다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만큼

48) 李是遠, 『沙磯集』 冊二, 한국문집총간 302, 민족문화추진회, 2003, 67~68면.

할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나의 죽음’이란 금기를 깨는 일이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음을 보여준다. 연작 자만시의 증가는 후기에 들어 자만시가 특별한 자기표현의 도구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후기에 들어 대를 이어 자만시를 남기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도 변화된 양상이다. 權得己(1570~1622)의 『自挽』<sup>49)</sup>과 權謬(1604~1672)의 『次陶挽歌韻』 三首<sup>50)</sup> 李明五(1750~1836)의 『自挽』 十二首<sup>51)</sup>와 李晩用(1792~?)의 自挽 주제 시가 그 대표적인 예다.<sup>52)</sup> 아버지의 자만시 창작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자만이란 금기를 대를 이어 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진다. 다른 자전문학에서도 대를 이은 글쓰기가 발견되는 만큼 이런 일탈적 글쓰기가 일정한 가풍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다.<sup>53)</sup> 앞서 언급한 이명오의 아들인 李晩用(1792~?)은 아버지를 이어 다음과 같은 자만시를 남기고 있다.

세월 흘러 내 죽은 뒤에 돌아오게 되면,  
 풍광은 그대로고 초가집은 한가로우리.  
 남은 사람 속에서 모범될 만한 이 구하기 어려운데,  
 혼백이 어찌 이 세상에 연연하리오.  
 황량한 무덤엔 계절 따라 술 올린 자취 남고,  
 시로 이름난 옛 집엔 강산만이 남아 있으리.  
 낙화유수 같은 영락함이 평생의 한이었으니,  
 모든 것 유유히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네.  
 歲去應吾死後還, 風光依舊草堂間.  
 典型難覓餘人裏, 魂魄寧思此世間.  
 酒跡荒墳隨節序, 詩名故宅有江山.

49) 권득기는 광해군 13년(1621) 52세 되던 해(임종 한 해 전) 『自挽』 시를 지었다. 權得己, 1570~1622), 『晩悔集』 卷一, 한국문집총간 76, 민족문화추진회, 1991, 9면.

50) 權謬, 『炭翁集』 卷二, 한국문집총간 104, 민족문화추진회, 1993, 271~272면.

51) 李明五, 『泊翁集』 卷六, 한국문집총간 속집 102, 한국고전번역원, 2010, 112면.

52) 李晩用, 『除夕, 走筆和西山韻 六首』 중 其三, 『東樊集』 卷三, 한국문집총간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561면.

53) 자찬묘지명의 경우 대를 이어 창작된 작품들이 보인다.

落花流水平生恨, 一切悠悠摠不關. 右自挽

— 「除夕, 走筆和西山韻 六首」 중 其三<sup>54)</sup>

이만용은 할아버지 이봉환, 아버지 이명오와 함께 삼대가 모두 뛰어난 시인이었다. 이 작품은 정약용의 아들인 丁學淵의 시에 和韻 형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詩名故宅」이란 표현에서 집안의 文翰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마지막 연에서 평생의 한을 말한 것은 할아버지 이봉환의 억울한 죽음에 그 이유가 있다.<sup>55)</sup> 후기에 들어 자만시는 전기와 중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 기존 시를 부연하거나 과체시와 같이 다소 이질적인 시형식에 담겨 표현되기도 했다. 이 부분은 조선시대 자만사에서 발견되는 계보적 특징 중 하나기 때문에 항목을 달리 해서 논하기로 한다.

#### 4. 계보적 특징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자만시의 계보에서 조선시대 자만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 자만시의 첫 번째 특징은 정치현실에서의 좌절과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예감이 창작 동인이 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 항목에서 언급한 홍언충·기준·노수신의 자만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남효온과 그의 자만시에 대해 언급한 김종직 역시 생전에 사회를 겪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과 그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자만시의 창작과 감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사한 범주로 묶어서 볼 수 있다. 실제 남효온과 김종직은 죽은 뒤 사회에 휘말려 부관참시 되기도 했다.<sup>56)</sup>

54) 李晩用, 『東樊集』 卷三, 한국문집총간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561면. 西山은 丁學淵의 호다.

55) 자세한 내용은 앞서 아버지 이명오의 시를 인용할 때 언급한 바 있다.

56) 남효온과 김종직은 사후인 연산군 때 각각 사회에 휘말려 剖棺斬屍되었다. 남효온은

필자는 앞서 도연명의 『擬挽歌辭』와 진관의 『自作挽詞』가 조선시대 자만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sup>57)</sup> 거명된 작가들의 자만시는 주제적 특성에서 볼 때 진관의 『자작만사』와 공유하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형식상에선 진관의 자만시가 장편고시임에 반하여 이들 작품은 대부분 절구나 율시로 쓰여 있다. 또 작품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도 홍언충·기준·노수신의 자만시는 진관의 작품과 유사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자만시들은 조선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부수된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편이 더 온당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자만시의 대다수는 김충직이 남효온의 자만시를 읽고 도연명과 진관의 작품을 계승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국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작품의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자만시를 창작할 때 우리 문인들은 자연스럽게 도연명을 떠올리곤 하였다. 아래에서 언급할 신정하와 이민보의 경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창작에서 이들 작품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시대 자만시의 변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작품경향이 어떤 요인들로부터 파생된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자만시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죽음을 부모, 혹은 선대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유가적 가족윤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만시에 침윤된 유가적 윤리는 조선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도연명의 『의만가사』에 화운한 權詵의 『次陶挽歌韻』 三首와 田愚의 『和陶集擬自挽歌辭三首』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sup>58)</sup> 권시는 예학자로 퇴계·남명 학파 간의 화해를 위해 애쓴 인물이었고, 전우는 구한말의 巨儒로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학자였다. 이들은 도연명의 자만시에 공감하여 화운하면서도 그 내용을 유가윤리로 변주하고 있다. 『의만가사』 두 번째 수가 “하루아침에 집 문을 나서 떠나면, 돌아올

갑자사화 때 『昭陵復位疏』가 문제가 되어 楊花渡에서 부관참시되었으며, 김충직은 무오사화 때 『弔義帝文』이 문제가 되어 부관참시되었다.

57) 졸고, 『自挽詩의 詩의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326~330·338면; 『한국 한시에서의 陶淵明 <擬挽歌辭>의 수용과 변주』, 『한국한시연구』 21, 한국한시학회, 2013.10, 291~332면

58) 權詵, 『炭翁集』 卷二, 한국문집총간 104, 민족문화추진회, 1993, 271~272면; 田愚, 『良齋集』 前編續 卷六, 한국문집총간 333, 민족문화추진회, 2004, 568면.

날 분명 기약이 없으리.一朝出門去, 歸來夜未央.”라고 한 것과 달리 권시는 “항상 도를 깨우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생사에 관계없이 즐거움은 끝이 없어라 常恐未聞道, 存沒樂未央.”라고 시를 마무리하였다. 공자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 夕死, 可矣.”(『논어』 「里仁」)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전우 역시 “살아서는 하늘에 순응하고 죽어서는 편안하다.生順死則安.”는 聞道の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59)</sup> 송대 張載의 『西銘』에 “살아서는 내 하늘에 순응하고, 죽어서는 내 편안하리라.存吾順事, 沒吾寧也.”란 표현이 보이는 것처럼, 전우의 관점 역시 철저히 도학적 맥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도연명의 『의만가사』가 보여주는 도가적 상대주의에 가까운 생사관을 道學的으로 변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다른 자만시에서도 발견된다. 盧光履(1775~1856)의 『口呼自輓』은 儒者로서의 몸가짐 특히 慎獨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sup>60)</sup> 이런 유가윤리가 자신의 죽음과 연결될 때 시인은 다음처럼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흰머리 되어서 성은 입어 특별히 秋官을 맡았으나,<sup>61)</sup>  
 맡은 바 직위 감당키 어려워 물러나겠다 아뢰었지.  
 노래 부르니 절로 도연명의 자만시가 되고,<sup>62)</sup>  
 나이 먹어서 趙武를 부끄럽게 하는 일 생길까 두렵구나.<sup>63)</sup>

59) 『論語集註』에선 “子曰, 朝聞道, 夕死, 可矣.”를 두고 “道者, 事物當然之理, 苟得聞之, 則生順死安, 無復遺恨矣.”라고 풀이하었다.

60) 이 시는 임종 전 자만을 입으로 불러 준 것이라고 한다. 許傳, 『性齋集』 卷二十二, 『盧勿齋墓碣銘』, 한국문집총간 308, 민족문화추진회, 2003, 433면, “勿字旗頭勇字懸, 靡諸強敵壁深堅. 休言着[著]脚旁無地, 只信知心上有天. 造次淵冰[冰]常戒懼, 平居呼吸亦尤愆. 而今以後吾知免, 含笑怡然指九泉.”

61) 秋官: 『周禮』에 나오는 六官의 하나로, 刑獄을 관장하는 벼슬이다. 이는 이민보가 그의 나이 76세 때인 1792년(인자)에 아들 李肇源이 등계하자 侍從臣의 아버로 품계가 올라 형조 판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말로 보인다

62) 陶令挽: 陶令은 도연명을 말한다. 도연명이 彭澤令을 지냈기 때문에 이같이 일컫는 것이다. 挽은 도연명이 지은 자만시인 『擬挽歌辭』를 말한다.

63) 趙文差: 趙文은 趙文子 곧 춘추 시대 쑤나라의 재상인 趙武를 가리킨다. 조무는 趙孟이라고도 하는데 시호가 文子이므로 趙文子라고도 부른다. 『春秋左氏傳』 襄公 30년 2월

부친 돌아가신 해 돌아오니 남은 생애 눈물 나고,  
 상전벽해의 변화 보느라 겁 지나도록 근심하였다네.  
 누가 사장으로 불후의 명성 남기려고 하는가?<sup>64)</sup>  
 저 두레박줄 아래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구는 것을 보게나.<sup>65)</sup>  
 白頭恩遇特知秋, 陳力難能使告休.  
 歌發自成陶令挽, 耄深竊畏趙文羞.  
 年回苦壘殘生淚, 眼閱滄桑過劫愁.  
 誰欲詞章垂不朽, 看他蛙井縋潺流.

「부모님 연이어 돌아가시고<sup>66)</sup> 해가 바뀌어, 다시 한 갑자가 지나 己未年이 돌아오고, 해가 또 庚申年으로 이어지려고 하니,<sup>67)</sup> 놀랍고 비통하여 죽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택당집』의 「절필」시<sup>68)</sup>를 차운하여 대략 도연명이 自挽한

23일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杞나라의 성을 쌓을 적에 絳縣에서 동원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나이도 몰랐다. 나이를 추산해 보니 73세나 되었다. 조무가 노인을 징발한 관리가 누군지 따져보니 원래 자신의 屬吏였던 사람이었다. 이에 조무는 노인에게 토목 공사에 동원한 일을 사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문자의 부끄러움이란 이민보 자신이 나이가 들어 관직에 나가게 되어 주변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 64) 이민보는 삼대 문형을 배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년에는 李天輔, 吳瑗 등에게 배워 사장에 힘썼으나, 朴弼周, 李穉에게 도학에 힘쓸 것을 권유받고 이후 성리학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 65) 縋潺流는 재능이나 식견이 부족해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장자』 「至樂」편의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 楮小者不可以懷大 縋短者不可以汲深”라는 말을 엄두에 둔 표현이다.
- 66) 愍凶은 부모님의 상을 말한다. 기미년(1739)과 경신년(1740)에 생부인 李亮臣과 생모인 平山 申氏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 67)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미년에서 한 갑자가 지나 다시 기미년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시는 이민보가 세상을 떠난 해인 1799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 68) 『택당집』의 「절필」시: 李植의 「月十九日, 口占代筆. 丁亥」를 가리킨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내 나이 예순 넷, 장부의 한평생 끊임없이 고달팠네. 문자로 얻은 헛된 이름 끝내 화를 초래했고, 청반에 올라 하는 일 없이 먹은 국록 항상 부끄러웠어라. 눈으로는 천지의 무궁한 일 보면서도, 마음으론 임금과 백성에 대한 다함없는 시름 품었어라. 이제 저승으로 가면 아무 생각도 없으련만, 푸른 산 영원하고 물은 동으로

의미를 부치다. 愍凶逢新, 復見己未讐, 年又接庚申, 驚慟摧怛, 求死不得, 次澤堂集絕筆韻, 畧寓淵明自挽之意」란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李敏輔(1717~1799)의 자만시 중 첫 번째 수다. 이민보가 이 시를 창작한 것은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죽음 후 한 갑자가 다시 지나도록 그 슬픔은 조금도 쇠하지 않고 시인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예로 玄德升(1564~1627),<sup>69)</sup> 李琛(1616~1684),<sup>70)</sup> 李惟樟(1625~1701),<sup>71)</sup> 朴泰茂(1677~1756)<sup>72)</sup> 등의 자만시가 있다.

조선시대 자만시의 세 번째 특징은 자만시 창작에 전대인의 자만시를 원용하거나 무관한 시를 전용한 경우가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창협이 문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申靖夏(1680~1715)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이다.

근래 신정하가 죽을 무렵 도연명의 자만시 “다만 한스럽긴 세상 살 적에, 술 실컷 마시지 못한 일이라네.”라는 구절을 외웠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대는 평생 술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신정하가 대답하길, “도연명의 한은 술에 있지만, 내 한은 책에 있다네. 술 충분히 마시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것은 한이 아니라 희롱한 말이지만, 책 충분히 못 읽어서 한스럽다는 것은 희롱한 말이 아니라 진짜 한이라네. 내가 이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네.”라고 하였다.

近者申學士靖夏臨死, 誦淵明自挽詩曰,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人有問之者曰, “子之平生不喜酒, 而今有此言何也, 豈已亂乎?” 曰, “淵明之恨在酒, 靖夏之恨在書, 飲酒恨不足, 非恨也戲也, 讀書恨不足, 非戲也恨也, 吾不能限目矣.”<sup>73)</sup>

安錫徹의 기록에 따르면, 신정하의 죽을 무렵 도연명의 『의만가사』를 외었다고

흘러가리. 行年六十四春秋, 弧矢生涯苦未休. 文字虛名終逐禍, 清班素縻每包羞. 眼看天地無窮事, 心抱君民不盡愁. 便入九原無一念, 碧山長在水東流.”

69) 玄德升, 『自挽』, 『希菴遺稿』 卷二, 한국문집총간 속집 13, 민족문화추진회, 2006, 330면.

70) 李琛, 『自挽』, 『蒙庵集』 卷二, 木版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71) 李惟樟, 『自挽』, 『孤山集』 卷三, 한국문집총간 126, 민족문화추진회, 1994, 61면.

72) 朴泰茂, 『自挽』, 『西溪集』 卷二, 한국문집총간 속집 59, 민족문화추진회, 2009, 257면.

73) 이 내용은 安錫徹이 鄭弘祖에게 보낸 편지에 소개되어 있다. 安錫徹, 『雪橋集』 卷五, 『與何人書』(鄭弘祖), 한국문집총간 233, 민족문화추진회, 2000, 539면.

한다. 이 시를 자신의 자만시로 삼았던 셈이다. 그런데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던 신정하가 유독 이 두 구절을 외우자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정하는 도연명의 한은 술에 있고 자신의 한은 책에 있는데, 도연명의 마실 술 부족하다는 말은 희롱하는 말일 뿐이지만 자신의 독서가 부족한 것이 한스럽다는 말은 진정이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런 전용의 또 다른 예로 자만시와 무관한 기존 작품을 부연하여 자만시로 삼은 경우가 있다.

전전하던 괴족의 시름 누구에게 말할까?(괴족은 당 현종이 안록산을 피한 곳이다.)  
 동쪽 바라보니 서울(오문)의 흥취는 아득하기만 하네.(동으로 낙양을 비유한 것이다.)

혼이 떠난 한강(구강)은 봄풀 밖이고, (京江(한강 일대)은 아홉 줄기에 그치지 않는다.)

꿈 돌아가는 삼각산(삼협)은 저녁 돛배 앞이네.(삼각산이 이것(삼협)이다.)  
 가난 달갑게 여겨 성도로 점 보러 가길 싫어했고(평생에 점치기를 좋아하지 않았  
 다.)<sup>74)</sup>

술 마시고 吏部郎(畢卓)처럼 잠들지는 않겠네.<sup>75)</sup>(주석 내용 미상, 글자 보이지  
 않음)

만 리 밖 봉래산에 만일 갈 수 있다면,

내 쇠한 흰 머리 가지고 여러 신선들께 묻고 싶구나.

間關巴蜀(明皇避胡地.)愁誰語, 東望吳門(以東吳比東洛.)興渺然.<sup>76)</sup>

74) 成都卜: 嚴遵의 자는 君平인데, 그는 성도의 저자에서 점을 치며 살았다고 한다. 매일 몇 사람을 봐주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백 진 정도를 벌게 되면 곧 가게를 닫고 발을 내리고서 『老子』를 가르쳤다고 한다. 『杜詩詳注』 卷十三, 「遊子」. 두보 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길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으니 그래서 점치러 가는 것이 싫은 것이고, 시름을 술로 풀 수 없으니 그래서 취하여 자는 짓을 배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75) 吏部眠: 吏部는 畢卓을 가리킨다. 그가 吏部郎을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晉 懷帝 때 사람으로 자는 茂世이다. 필탁은 술을 끄떡이도 좋아하면서 禮俗에 구애받지 않던 인물이다. “오른손에 술잔 왼손에 게 다리를 잡고서 술 못 속에서 퍼 마시다 죽으면 충분하다. 右手持酒卮, 左手持蟹螯, 拍浮酒池中, 便足了一生.”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필탁은 항상 술을 마시고 직무를 소홀히 했는데, 이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일을 폐기하는 것을 吏部眠이라 했다.

76) 두보의 「遊子」 시엔 「渺」자가 ‘沓’자로 되어 있다.

魂去九江(京江不止九)春艸外, 夢歸三峽(三角是也)暮帆前.  
 甘貧厭就成都卜(平生不好卜), 飲酒休爲吏部眠.(飲不罽盜?)  
 萬里蓬萊如可到, 欲將衰白問羣仙.

- 석지형, 『自挽』<sup>77)</sup>

石之珩(1610~?)의 시는 두보의 오언시 『遊子』에 매구 두 글자씩을 덧붙인 것이다.<sup>78)</sup> 석지형은 이렇게 부연한 칠언시를 자신의 자만시로 삼고, 그 의미를 自注로 덧붙여 놓기까지 했다.(괄호 안의 내용) 두보 시의 원래 의미는 나이 들어 떠도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데 있지만, 석지형의 시는 여기에 조금씩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자만시로 변주하고 있다.

조선시대 자만시의 네 번째 특징은 자만시에 전혀 걸맞지 않은 과체시 형식으로 쓴 작품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鄭基安(1695~1775)의 『托意自挽詩, 恨飲酒不足』이 그것이다.<sup>79)</sup> 시의 앞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술동이 앞에서 두건을 벗으니,  
 두건아 너를 나는 참으로 저버렸구나.<sup>80)</sup>  
 마냥 울타리 아래 국화로 하여금 사람 웃게 하지만,<sup>81)</sup>  
 세간에 왕홍처럼 늘 주안상 차려 줄 이 많지 않음에라.<sup>82)</sup>

77) 석지형, 『壽峴集』 卷上, 한국문집총간 속집 31, 민족문화추진회, 2006, 331면.  
 78) 두보의 원시는 다음과 같다. “파촉에서의 시름 누구에게 말하라?, 오문의 흥취는 아득하  
 기만 하다. 구강은 봄풀 밖에 있고, 삼협은 저녁 돛배 앞에 있다. 성도에 짐치러 가는  
 것 싫증나고, 이부랑처럼 잠드는 것 그만둘 것이니, 봉래산에 만약 이를 수 있다면,  
 늙고 노쇠한 몸이 여러 신선에게 물어보리라. 巴蜀愁誰語, 吳門興渺然. 九江春草外,  
 三峽暮帆前. 厭就成都卜, 休爲吏部眠. 蓬萊如可到, 衰白問羣仙.”  
 79) 鄭基安, 『晚慕遺稿』 卷三, 한국문집총간 속집 73, 한국고전번역원, 2009, 475면.  
 80) 頭上巾은 머리에 쓰는 葛巾을 말한다. 도연명은 술이 익으면 머리에 쓴 갈건으로  
 술을 거른 다음 다시 썼다고 한다. 도연명 『飲酒』 시 스무 번째 수에 “만일 다시  
 통과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머리 위 두건을 저버리는 것이리라. 若復不快飲, 空負頭上  
 巾.”라고 했다. 이 구절은 도연명의 갈건 고사와 『음주』 스무 번째 수의 표현을 연결시켜  
 표현한 것이다.  
 81) 籬菊 : 도연명 『飲酒』 시 다섯 번째 수에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노라니, 유연히  
 남산이 눈에 들어오네.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고 한 데서 온 표현이다.

인생 백년 하물며 잠깐이거니,  
 내 입에 술 잔 물고 있는 날 얼마나 될까?  
 우울하게 劉伶의 혼에게 묻노니,  
 황량한 들판에서 다시 술잔 잡을 수 있는가?  
 큰고래 냇물 들이마시듯 술 마시는 배 채우지 못했으니,<sup>83)</sup>  
 이 한스러움 관 뚜껑 덮은 뒤에도 다스리기 어려워라.  
 순간의 삶 속에서 일찌감치 대자연의 권능을 엿보니,  
 예로부터 천명에는 박하고 후함이 없더라.

樽前脫却頭上市，巾乎於汝吾實負。長教籬菊好笑人，世間王弘不多有。人生百年況斯須，  
 余口銜杯能幾久？悄然爲問伯倫魂，可復荒原提榼盞。長鯨未果吸川腹，此恨難平蓋棺後。  
 浮休早覩大化權，自古洪勻無薄厚。<sup>84)</sup>

인용 부분은 전 44구 중 과체시 형식으로 처음 2條에 해당한다.<sup>85)</sup> 시인 정기안의 초명은 思安이었으나, 먼 친척뻘인 思孝가 李麟佐의 난에 가담한 일로 자신 역시

82) 王弘의 주안상: 도연명은 농민들과 가까이 지냈지만 관리와 귀족들은 멀리했다고 한다. 도연명이 쉰다섯이 되던 해에 자사 王弘이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하루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관청으로 청했다. 그러나 도연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왕홍은 한 가지 꾀를 냈다. 도연명과 가까운 사람에게 시켜서 그가 늘 지나다니는 길목에 주안상을 차리게 한 것이다. 그러고는 지나가는 도연명을 잡아당기며 같이 술을 먹자고 했다. 도연명은 이름난 애주가였다. 술을 보자 도연명은 좋아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흥이 나서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왕홍이 나타났다. 그는 마치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수인사를 하고 술상 앞에 앉았다. 그제야 왕홍은 도연명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만날 수 있었다.

83) 長鯨未果吸川腹: 杜甫의 『飲中八仙歌』에, “좌상은 날마다 주홍으로 만전을 허비하여, 술을 큰 고래가 온갖 하천 들이마시듯 하네.左相日興費萬錢 飲如長鯨吸百川.”라고 한 데서 온 표현이다.

84) 鄭基安, 『晩慕遺稿』 卷三, 한국문집총간 속집 73, 한국고전번역원, 2009, 475면.

85) 이 시는 총 44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18운 36구를 기본으로 하는 조선 후기 과체시 정식과 조금 차이가 있다. 또 出句 처음 두 글자는 평성이고, 對句 처음 두 글자는 측성이라는 과체시 평측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과체시는 제목 중에서 한 글자를 낙점하면 그 글자와 같은 운을 써야하는데, 이 시는 제목 중 酒자와 같은 韻字인 上聲 有韻에 속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과체시의 구조에서 세 연은 하나의 의미단위로 묶여 1條라고 부른다.

구설에 오르자 개명하였다고 한다. 문집 중에 별도로 과체시 항목을 설정하고, 모두 네 수의 시를 실어 놓은 것을 보면 정기안이 과체시에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그는 약관의 나이에 진사시와 별시에 합격하였고, 후일 영조로부터 小科回榜, 곧 소과 합격 후 60년이 지났다고 虎皮를 하사받기도 했다.

정기안의 시는 도연명 『의만가사』 첫 번째 수의 “다만 한스럽긴 술 실컷 마시진 못한 일이라네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를 “만족스럽게 술 마시지 못한 일 한스럽네 恨飲酒不足”로 축약하여 과체시제로 삼은 것이다. 이 작품은 도연명 자만시의 구절이 과체시의 제목으로 출제되기까지 했음을 보여준다. 과체시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시구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제시되는데, 『托意自挽詩, 恨飲酒不足』라는 제목은 본래 시제가 아니라 작자 혹은 문집 편찬자가 윤색을 가한 제목인 듯하다.<sup>86)</sup>

시의 書頭 첫 두 구절에 나오는 頭上市이란 머리에 쓰는 葛巾을 말한다. 도연명은 술이 익으면 머리에 쓴 갈건으로 술을 거른 다음 다시 썼다고 한다. 도연명 『飲酒』 其二十에 “만일 다시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머리 위 두건을 저버리는 것이리라. 若復不快飲, 空負頭上市.”라고 했는데, 처음 두 구의 표현은 여기에서 온 것이다. 과체시에서 처음 두 구절은 破題로서 작품 전체의 평가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데, 정기안은 이를 위와 같이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선 이어서 왕홍과 유령 등의 고사를 써서 음주의 문제를 부연하면서 결국 음주의 문제를 인생무상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다. 과체시를 평가할 때 당락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대목이 入題다. 입제는 첫 조 중 세 번째 연(과체시에선 제3구)에 해당한다. “인생 백년 하물며 잠깐이거니, 내 입에 술잔 물고 있는 일 얼마나 오래였을까 人生百年況斯須, 余口銜杯能幾久?”가 그것인데 인생무상과 음주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다.

정기안의 자만시는 자만시의 변주양상 중 가장 독특하며 조선적인 특색을 띤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과체시를 東詩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는 없는 시체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자만시의 마지막 특징으로 타인에 의해 지어진 상투적 만시에 대한

86) 『晚慕遺稿』에 수록된 시문은 그의 아들 鄭晚錫이 수습하여 1834년 6권 3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목이 누구에 의해 윤색된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거부감으로 창작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의 어버이를 장례 지내는 자들이 賢愚와 貴賤을 막론하고 오로지 挽詩 구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여겨서 원근에 널리 구하고 오직 많이 얻는 것만을 힘쓴다. 장례 날에 도로에서 구경하는 자들이 만장을 보고 찬탄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아마 그렇지 않다면 다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가령 죽은 이가 실제 기록에 이렇게 칭송할 일이 많을 지라도 반드시 이치럼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물며 나처럼 한 일 없는 자의 경우여라. 이 때문에 만시가 없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오로지 비웃음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간략히 素懷를 말했으니, 관을 매달아 하관한 뒤에 한쪽 귀퉁이에나 넣어둬야 지당한 일일 것이다.

吾觀世之葬親者，無賢愚貴賤，惟以求挽爲第一事，廣求遠邇，惟多是務。葬之日，道路觀者，莫不嗟賞，其不然者，皆以爲恥。設使化者實錄多有所稱，似不必如是，況如我之空空者乎。以故不以無挽爲恥，惟以取笑爲懼，略道所懷，懸棺之後，納于一角，至當。<sup>87)</sup>

17세기 柳仁培(1589~1668)는 「自挽」시의 并序에서 挽詩가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기던 당시의 폐습을 비판한 바 있다.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스러운 내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쓰는 편이 낫다고 적고 있다. 유력한 인물에게 挽詞를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挽詩가 많은 것을 자상스럽게 여기는 當時의 風潮에 대한 질타였다. 유인배는 이런 이유에서 스스로 만시를 썼다. 그의 자만시는 자신의 죽음을 假裝한 일종의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사후 만시를 둘러싸고 벌어질 허위와 허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한 자신이 직접 무덤에 들어 갈 만시를 썼다는 점에서 실용적 성격도 동시에 띠고 있다.

## 5. 맺는 말

필자는 지난 7년여 동안 165수의 자만시를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 발굴 여하에 따라 그 수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만시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87) 柳仁培, 「自挽」并序, 『猿溪集』卷三,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수록 영남사립문집.

비정상적 글쓰기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작품수이다. 후기로 갈수록 작품수가 점증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자만시가 창작되었다. 조선시대 자만시가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작가들의 관심을 모은 글쓰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자만시의 계보 속에서 한국 자만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또 그 비교문학적 위상은 어떤 것일까?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양상이 밝혀져 있지 않은 지금 이에 대한 해답은 선부른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중국 자만시와는 다른 특수한 국면들이 많이 발견된다. 특정 작가군이 자만시 창작경향을 보인다거나 과체시와 같은 특수한 시형식에 담긴 자만시가 지어졌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아시아 자만시의 계보 속에서 그 의의를 규정하는 작업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究明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 주제어 : 자만시, 조선시대, 전개양상, 계보, 특징, 시 형식, 생사관

## 〈참고문헌〉

### 1. 원전역주서류

- 강석중·강혜선·안대회·이종묵 옮김,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대의 한시(國朝詩 刪)』 1, 문헌과해석사, 1999, 71~72면.
- 경상대학교 문천각 소장 경상우도문집.
-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2005.
- \_\_\_\_\_, 『한국문집총간 속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5~2009.
- 박무영·이현우 외 역, 『沈澮丙函』(하), 태학사, 2006, 295~297면.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영남사림문집.
-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속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2013.

### 2. 연구논저류

- 심경호, 「한국 고전문학의 자서전적 글쓰기에 대한 고찰」, 『第十七屆中韓文化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2008, 1~20면.
- \_\_\_\_\_,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1~663면.
- \_\_\_\_\_, 『내면기행』, 이가서, 2009, 1~612면.
-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한국한시연구』 3, 한국한시학회, 1995, 49~80면.
- 吳小如, 「說陶淵明《挽歌詩》三首」, 『古典詩詞札叢』, 天津古籍出版社, 2004, 88~92면.
- 王立, 「中國古代自挽自悼詩文及其審美價值」, 『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 2001年 第3期.
-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 문학』, 집문당, 1999, 232~255면.
- 一海知義, 『陶淵明·陸放翁·河上肇』, 彭佳紅 譯, 中華書局, 2008, 65~82면.
- 임준철,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319~356면.
- \_\_\_\_\_, 「조선시대 自挽詩의 類型的 特性」, 『어문연구』 제14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6, 375~400면.
- \_\_\_\_\_, 「한국 한시에서의 陶淵明 <擬挽歌辭>의 수용과 변주」, 『한국한시연구』 21, 한국한시학회, 2013.10, 291~332면.

정경주,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법인문화사, 1993, 1~353면.

川合康三, 『중국의 자전문학』, 심경호 옮김, 소명출판, 2002, 192~197면.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1~485면.

[Abstract]

## Aspects of Development and Genealogical Features of Self-elegies in Chosun Dynasty

Lim, Jun-chul

This article focuses on aspects of development and genealogical features of Self-elegies in Chosun Dynasty. Development of self-elegy in Chosu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wo aspects: one is early and middle Chosun, the other is late Chosun. From the perspective of form, the ancient form were dominant in early and middle Chosun, while Jueju and Lushi became more popular in late Chosun. And in late Chosun, we can find new forms, like one person creating two or more works of self-elegy, a son writing self-elegy after his father. Self-elegy in the form of serial poetry also appeared.

Through these aspects, we can suppose, in late Chosun, more poets created and got interested in self-elegy. Some poet even used Tu Fu's works as his self-elegy, and some wrote self-elegy for the imperial examination.

From the point of genealogy, self-elegy in Chosun dynasty generally represents Confucian ideas on life and death, reflecting one's own life and calmly taking one's death. And many works relate death with the matter ancestors, so Confucian moral of filial duty is highlighted.

**【Key words】** : self-elegy, Chosun dynasty, aspects of development, genealogy, feature, form of poetry, ideas on life and death

임준철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전자우편: catcher1@hanmail.net

---

---

이 논문은 2014년 1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3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